“생애 맞춤 설계”…광은 PrimePB센터, 자산관리 ‘새 지평’

밀착 케어·전문 분야 연계 종합 컨설팅
미술·인문학 프로그램·방문 서비스도
이선미 센터장 필두 맞춤 솔루션 제공
“고객 최우선 지역 금융 파트너 될 것”





광주은행이 운영하는 ‘PrimePB센터’는 투자부터 절세, 상속·증여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 지역 자산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이선미 센터장이 고객과 상담하는 모습(왼쪽)과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 /안태호 기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단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산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고 절세와 상속·증여를 통해 부를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에 이전하려는 수요가 커지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광주은행이 운영하는 ‘PrimePB센터’가 지역 자산가를 대상으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 1층에 위치한 ‘PrimePB센터’는 고객의 자산 현황과 투자 성향,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를 종합 분석하고 부동산·세무·회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PrimePB센터는 고객의 자산 형성부터 운용, 은퇴 준비, 상속·증여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향하며, 전담 프라이빗뱅커(PB)가 고객별 자산 구성과 투자 성향 등을 파악한 뒤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적합한 관리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세미나, 사업설명회, 분야별 전문 상담 등 목적에 맞게 세분화된 5개의 전용 룸을 구비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세무,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내부·외부 전문가 그룹과 연계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해 투자 전략 수립은 물론 상속·증여와 가업승계 등 복잡한 자산관리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미술·문화·인문학 강좌 등 세미나 프로그램과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강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센터가 주목하는 것은 자산관리 수요의 변화다. 금리와 환율, 증시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고액자산가들도 개별 상품의 수익률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과 유동성, 세금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선미 PrimePB센터장은 “센터는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상황과 목표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센터”라며 “자산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초기 단계부터 은퇴 준비, 상속과 증여 등 자산 이전 단계까지 생애 전반을 함께 고민하는 평생 금융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와의 차별점으로는 분야별 전문가 협업과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꼽았다.

이 센터장은 “전담 PB가 고객의 자산 구성과 투자 성향, 생애주기를 분석하고 부동산·세무·회계·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협업해 투자 전략부터 상속·증여, 가업승계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미술·문화·인문학 강좌 등 고객의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기준 변화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개별 자산의 단기 수익률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자산 전체의 위험관리와 유동성 확보, 절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도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자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와 가업승계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자산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어렵고, 세금 부담과 자산 이전 과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고객의 자산을 다각도로 진단해 개인별 상황과 목적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상속·증여나 가업승계 문제가 발생하면 세무·법률 전문가와 연계해 자산이 다음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무적·법률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PrimePB센터는 앞으로 은퇴 설계와 상속·증여, 세무 컨설팅 등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센터장은 “최종 목표는 단순한 자산관리를 넘어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신뢰받는 자산관리 명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전문적인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역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안태호 기자

GICON, 대만 콘텐츠 전시회 ‘TCCF’ 참가

기업 5개사 참여 공동관 운영
‘코리아 IP 쇼케이스’ 개최도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2일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남강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대만크리에이티브콘텐츠페스티벌(TCCF)’에 지역 콘텐츠 기업 5개사와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다.

대만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TCCF는 방송·영화·애니메이션·출판·뉴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구매자와 투자사가 참여해 콘텐츠 거래와 투자, 공동제작 등을 논의한다.

GICON은 이번 행사에서 지역 콘텐츠기업 5개사와 공동관을 운영하고, 참가기업의 콘텐츠와 지식재산(IP)을 홍보하며 해외 구매자와의 일대일 사업 상담을 지원한다.

참가기업은 ▲㈜삼십팔도씨 ▲㈜드림팩토리스튜디오 ▲㈜캠프파이어애니웍스 ▲㈜핑고엔터테인먼트 ▲바닐라씨㈜로, 애니메이션·캐릭터·웹툰·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GICON은 살롱 무대에서 해외 구매자와 투자사, 배급사를 대상으로 ‘코리아 IP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텐츠 설명회에서는 참가기업별 콘텐츠의 경쟁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소개하고, 국제 공동제작과 투자 유치 등 후속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GICON 관계자는 “이번 공동관 운영과 콘텐츠 설명회가 전남광주 지역 콘텐츠기업의 중화권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수한 콘텐츠 지식재산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전남광주반도체포럼, 민·관·산·학·금융 거버넌스 가동

상생펀드 조성·조례 입법화 추진

1전남광주반도체포럼이 지역 반도체 산업의 성공적 안착과 실효성 있는 민·관·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전남광주반도체포럼 연대(얼라이언스)’를 발족한다.

2일 포럼에 따르면 얼라이언스 출범은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실물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상생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럼은 4개 분야, 20여개 핵심 기관을 구축해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업 안착과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경제·산업계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 및 펀드를 지원할 금융·투자기관, 범시민적 공감대과 여론을 수렴할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맞춤형 인재 양성과 정책 논리를 개발할 학계·연구계가 연대해 상호 협력에 나선다.

또한 교육과 실무 중심의 정책 연구를 통해 뒷받침하고, ‘반도체 강사양성 및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해 반도체 산업 인식을 개선하며, 10인 규모로 발족하는 ‘부설 반도체전략연구원’이 기업의 요청 사항과 시민이 바라는 내용 등 수렴된 여론을 정책과 조례 제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달 중 전략연구원 공식 발족과 함께 내년 1월부터 금융계 참여 기관과 연계한 ‘지역 반도체 상생 펀드’ 조성 논의를 시작하고, 통합특별시의회와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해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진석 이사장은 “얼라이언스와 아카데미, 전략연구원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상생 생태계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지역 경제의 혁신적 도약을 이끌 각계 핵심 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오는 23일 광주 JS웨딩컨벤션에서 ‘창립 및 범시민 환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선옥 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